



연휴 기간 증시 흐름과 확인된 지표

1. 문제점이 속출한 유럽

- 지난 주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신규 부양책 합의 기대감에 상승
- 국제유가의 경우 수요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-4.0% 하락. 유럽 일부 국가들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, 부분적 봉쇄조치가 재개된 영향

2. 달러약세 요인은 강화되는 중

- 유럽 이슈가 재점화 되면서 유로화의 약세가 진행 중. 그러나 달러의 약세 요인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
- 유로존의 소비자물가는 최근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.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 스프레드는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
-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더불어 유로화의 상대적인 강세 압력이 되는 요인

3. 여전히 확인된 중국의 영향력

- 9월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. 상승폭은 축소되었지만, 지표의 레벨은 18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
- 주목할만한 것은 인도와 브라질. 인도의 경우 제조업 PMI가 전월대비 +4.8pt 급등. 브라질의 경우 지표의 레벨이 64.9pt까지 상승
- 브라질 지표의 강세는 중국의 회복을 반증. 품목별로는 철광석과 구리,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 중
-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(증시)들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



주식시장 투자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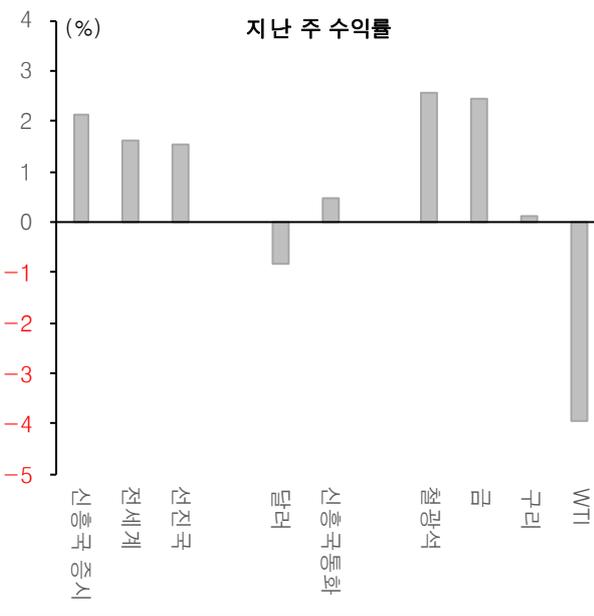
1. 문제점이 속출한 유럽

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 주 글로벌 증시는 +1.6% 상승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확진 소식이 있었지만, 미국 정부의 신규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다. 특히 지난 주 펠로시 하원의장이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하면서 보잉(BA US)의 주가는 +7.7%, 델타항공(DAL US)의 주가는 +6.6%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.

국제유가의 경우 증시와 달리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. 지난 주 WTI 는 -4.0%, Brent 는 -7.1% 하락했는데, 최근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. 유럽의 핵심국가 중 프랑스와 스페인의 신규 확진자수는 최근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고,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분적인 봉쇄조치를 재개하고 있는 실정이다.

유럽 내 최다 사망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대내외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. 지난 주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와 관련한 9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. 양측은 10/15일 EU 정상회의 전까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, 최근 영국 의회가 기존의 합의를 부정하는 '국내시장법'을 발의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.

[차트1]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보였으나, 국제유가는 수요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급락



[차트2]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부분적인 봉쇄조치가 재개되는 중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주식시장 투자전략

2. 달러약세 요인은 강화되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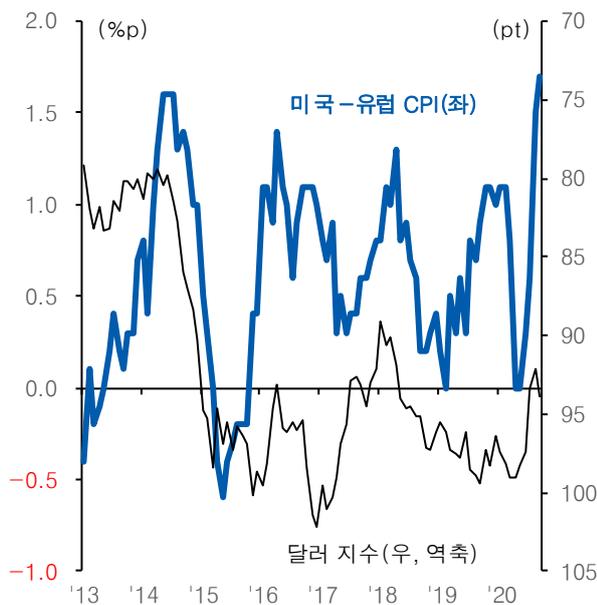
유럽의 보건적, 정치적 이슈가 재점화 되면서 9월 외환시장은 유로화의 약세, 달러화의 강세가 진행됐고, 그 동안 상승세가 강했던 신흥국 증시와 원자재 가격에는 조정이 발생했다. 9월 달러지수는 +1.9% 상승(강세), 신흥국 증시는 -1.8%, CRB 원자재 지수는 -3.1% 하락했다.

이슈 측면에서 달러의 강세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달러의 근본적인 약세 요인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실이다.

지난 주 발표된 유로존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년 이후 최저치인 -0.3%(y/y)를 기록했다. 8월 -0.2%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것인데, 미국의 물가가 8월 +1.3%, 9월 +1.4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(13일 발표 예정)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.

물가 흐름의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 스프레드는 2010년 이후 최대치(9월 미국 CPI +1.4%, 유로존 -0.3% 기준)로 상승할 전망이다. 이러한 변화는 달러지수 내 57.6%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의 상대적인 강세 요인(달러 약세)이 되며, 미국의 쌍둥이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달러의 약세 요인이다.

[차트3] 미국과 유럽의 물가 스프레드는 10년만에 최대치로 상승. 달러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



[차트4] 미국의 쌍둥이 적자 규모는 지속 확대되는 추세. 미국 의회는 추가부양책을 논의 중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주식시장 투자전략

3. 여전히 확인된 중국의 영향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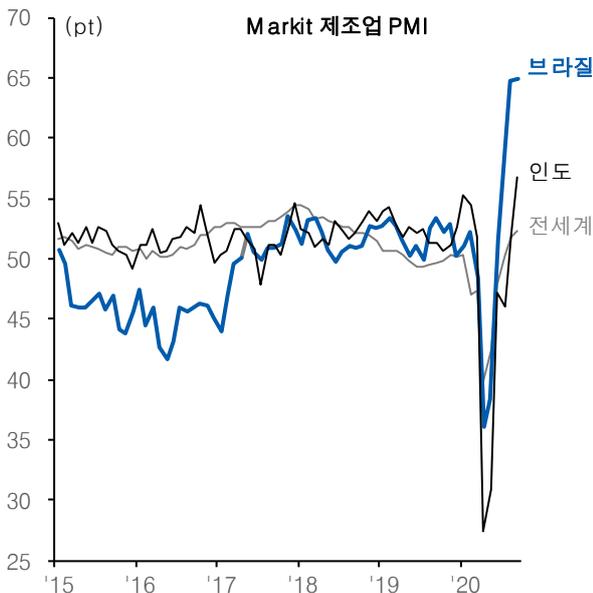
연휴 간 발표된 9월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. 전월대비 상승폭은 +0.5pt 로 축소되었지만, 이미 지표의 레벨이 18년 9월 이후 최고치(52.3pt)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폼하하기 어려운 성적이다.

9월 지표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인도와 브라질의 지표였다. 인도의 경우 제조업 PMI 가 전월대비 +4.8pt 급등하는 양상(25개국 중 최대폭)을 보였고, 브라질의 경우 지표의 레벨이 64.9pt 까지 상승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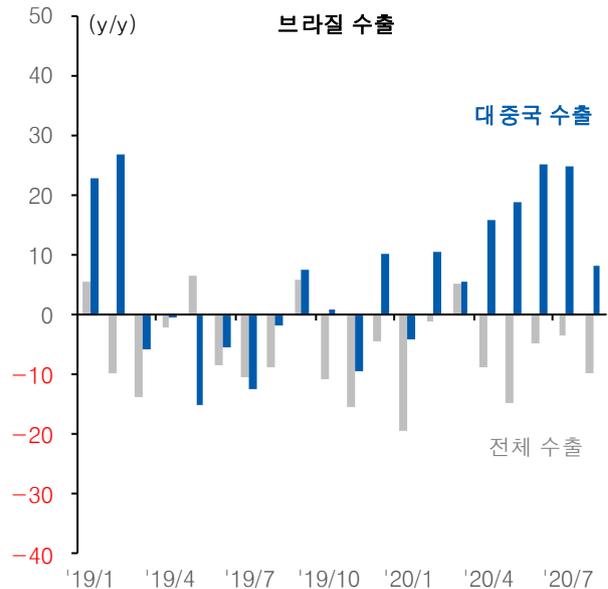
특히 브라질에 시사점이 있는 것은 중국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이다. 브라질의 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철광석과 구리의 반출량이 증가하고 있고, 지역별로 보면 중국향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(8월 대중국 수출 증감률 +8.1%. 브라질 전체 수출 중 중국 비중은 32.3%) 중국의 재정집행 현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생각되며,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(증시)들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판단된다.

지역별로는 유로존 지표가 독일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(유로존 +2.0pt, 독일 +4.2pt)했는데, 최근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봉쇄조치가 재개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

[차트5] 돋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의 제조업 경기



[차트6] 품목별로는 구리와 철광석,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



자료: Bloomberg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